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 주요 내용

### 🎯 워싱턴 D.C. 포커스

- (물류) 미국 정기선 운항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항만료 부과 재고 촉구 ..... 1
  - 세계해운협회, 미국 경제에서 해운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USTR의 항만료 부과 조치 재고를 촉구

### 📊 경제통상 동향

- (경제) 美 경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25년 1분기 역성장 기록 ..... 4
- (관세)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수입 관세 조정 및 상쇄제도 포고 ..... 5
- (규제) 중국, 미국산 제품 125% 관세 면제 '화이트리스트' 비공식 운영 ..... 6

### ⚖️ 의회법안 동향

- 특이 동향 없음 ..... 7

###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8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9

## 📅 워싱턴 D.C. 주요일정

5.1(목)	• 4월 자동차 판매(Auto sales)
5.2(금)	• 4월 미국 실업률(U.S. unemployment rate)
5.5(월)	• 4월 S&P 최종 미국 서비스 PMI(S&P final U.S. services PMI)

## (물류) 미국 정기선 운항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항만료 부과 재고 촉구

### 1. 개 요

#### □ 세계해운협회\*(World Shipping Council), 정기선 해운업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USTR 항만료 부과 재고 촉구(25년 4월)

\* 세계해운협회(WSC)는 글로벌 정기선(Liner Shipping)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 협회

- 세계해운협회,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보고서\*(25.4월)를 통해 정기선 해운업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 분석 제공

\* The Liner Shipping Industry Impact on the US economy

- '23년 정기선 운송 데이터에 근거, ①항만 운영, ②미국 컨테이너 수입품의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③무역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또한, 세계해운협회는 미국 정부의 해양 산업 강화 전략을 환영하지만, USTR의 항만료 부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조치 재고 촉구

- 항만료 부과\*가 단기적으로 무역 및 산업 전반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실질적으로 조선업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소비자·국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고 촉구

\* USTR, 대중국 조선업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소유, 운영 또는 건조 선박에 순톤수 (net tonnage) 기준의 항만료를 10월 14일부터 단계적 부과 발표(4.17)

#### 〈 USTR 중국 소유·운영·건조 선박 및 자동차 운반선 항만료 부과 계획〉

부과 대상	항만료 부과
중국 소유·운영 선박	\$50/순톤, 매년 \$30씩 인상해 2028년에 \$140/순톤
중국 건조 선박 운전자	\$18/순톤 또는 \$120/컨테이너, 매년 점진적 인상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150/CEU, 수수료 간 중첩 미적용

[자료: USTR]

## 2. 상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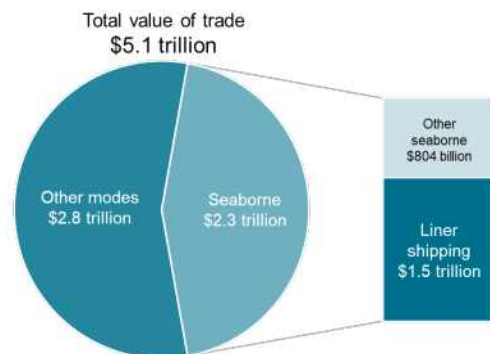
### □ 정기선 해운업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 일자리 창출, 제조 지원, 공급망 및 무역 촉진 등 미국 정기선 (Liner Shipping) 해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강조
  - 정기선 해운산업은 △공급망 연속성·회복력 보장, △광범위한 항만 네트워크를 통해 일관된 무역 흐름 유지, △미국이 글로벌 시장과 핵심 자원에 용이한 접근 지원
- GDP, 고용, 임금, 판매 활동 및 정부 수입에 대한 기여도와 같은 주요 지표 측면에서 정기선 해운산업의 연간 영향 정량화(2023년 데이터 기준)
  - 정기선 운송으로 '23년 미국 항만 사업에 △64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지원, △2조 달러 총판매 수익 창출, △미국 GDP에 1조 1천억 달러\* 기여
    - \* 1조 1천억 달러의 수입 중 4,900억 달러(44%)는 미국 기업이 사용하는 부품, 원자재, 소모품
  - '23년 정기선 운송 수입품은 △미국 기업 운영 비용의 1.5% 차지, △총 2,625억 달러의 연방 및 주 세수입 창출
  - 정기선은 '23년 미국 무역에서 △3억 1,300만 톤 규모 화물 처리, △약 1조 5천억 달러 운송(수출 3,350억 달러, 수입 1조 1천억 달러), △정기선 운송은 총 미국 무역의 30%(1조 5천억 달러), 미국 해상 무역의 64.4% 차지, △18,000개 이상의 항구에 기항

〈'23년 미국 정기선 운항의 주요 경제적 기여〉

항목	비고 (가치)
미국 GDP	1조 1천억 달러
미국 일자리 창출	640만 명
운송된 상품의 가치	1조 5천억 달러
총판매 활동(산출)	2조 달러
연방 및 주 세수입	2,625억 달러
연간 미국 항구 기항지	18,461

〈미국 무역에서 정기선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S&P The Liner Shipping Industry Impact on the US economy

## □ 세계해운협회, USTR의 항만료 비용 추정 및 우려 사항 제기

- USTR의 항만료 부과 계획에 따라, '25~'28년 중국 소유·운영·건조 선박 순톤수 및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규모에 부과되는 비용 추정

〈중국 소유·운영·건조 선박 및 자동차 운반선 항만료 추정 비용(2025-2028)〉

분류 / 단위 (USD 만불)	선박 톤수	2025	2026	2027	2028
중국 소유·운영 선박 항만료	25,000	125	200	275	350
	50,000	250	400	550	700
	75,000	375	600	825	1,050
중국 건조 선박 운영자	25,000	450	575	700	825
	50,000	900	1,150	1,400	1,650
	75,000	1,350	1,725	2,100	2,475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4,000 CEU	600			
	6,000 CEU	900			
	9,000 CEU	1,200			

[자료: 세계해운협회]

- 세계해운협회는 USTR의 항만료 부과 조치가 미국 무역 저해, 생산업체 피해 초래 및 미국 정부의 해양산업 강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소급 항만 수수료: 이미 운항중인 선박 대상 항만료 소급 적용은 농업 포함 수출업체 부담, 소비자 비용 증가 및 투자 불확실성 초래
  - 순톤수(net tonnage) 기반 요금: 선박의 화물 운송량 순톤수에 의한 항만료는 대형 선박의 부담 가중으로 미국 내 생산 필수 부품의 공급망 비용 인상
  - 자동차 운송 수수료: 미국 소비자 자동차 가격 인상 및 미 경제 성장 둔화 초래
  - 또한, 제안된 항만 수수료가 미국 무역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법적 우려 표명
- 세계해운협회는 미국 무역, 수출업체, 생산자 및 소비자를 저해하는 USTR의 항만료 부과 조치를 재고하고,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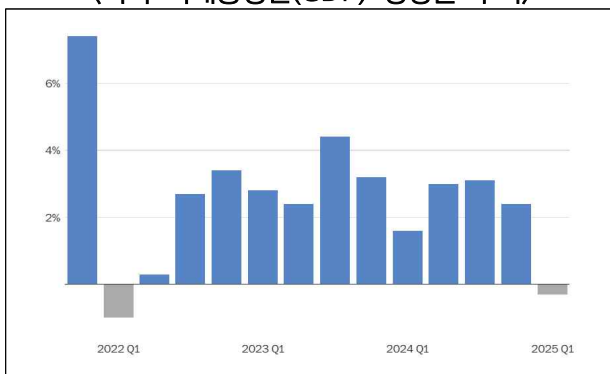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 인사이드 (4.28), S&P 보고서(25년 4월), 세계해운협회(링크)

## (경제) 美 경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25년 1분기 역성장 기록

- (개요) 미 경제분석국(BEA), '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3% 발표(4.30)
  - '22년 팬데믹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으로, 트럼프 행정부 고율 관세 예고에 따른 선제적 수입 급증(Front-loading)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설비투자(+22%) 및 재고 확대(+1,400억 달러)가 일시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수입 급증으로 순수출 기여도 -5.0%p를 기록하며 역성장 초래
- (상세) 내구재 중심 소비 위축, 무역적자 확대 및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고조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4.0% 대비 1.8%로 급감하고,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소비 감소, 소비자신뢰지수는 '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소비 심리 위축 지속
  - 3월 기준 미국의 수입은 수출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어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 기록, 연준(Fed)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기준 금리 인하 유보
  -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물가 상승률은 2월 2.5%에서 3월 2.3%로 둔화됐으나, 관세 시행에 따른 에너지·소비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 제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자료] 워싱턴포스트

〈실질 국내총생산(GDP) 및 주요 지표 동향〉

주요 지표	속보치
실질 국내총생산(GDP)	-0.3%
명목 국내총생산(GDP)	3.5%
실질 민간최종구매	3.0%
국내총구매물가지수	3.4%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3.6%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3.5%

[자료] BEA

- (반응) 경제 전문가들은 설비투자와 재고 확대가 일시적 효과로 분석되며, 하반기 소비 위축과 투자 둔화가 동반될 경우 경기침체 전환 가능성 제기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미 경제분석국(4.30), 워싱턴포스트(4.30)

---

## (관세)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수입 관세 조정 및 상쇄제도 포고

---

- (개요) 트럼프 행정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정된 관세 조치 발표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대통령 포고를 발표(3.26), 수입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4월 3일부터 시행, 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 제거를 위해, 수입량 조정과 부과된 금전적 수수료 및 관련 조치 시스템 등을 수정한 포고령 공표(4.29)

- (상세) 백악관, 미국 내 생산 유인을 위한 수입 자동차 관세 상쇄제도 공고

- 본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된 완성차 부품 중, 차량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첫 1년 동안 관세를 인하하고, 그 후 1년 동안은 10% 수준으로 조정
-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권장 소매 가격 가치의 3.75%\*와 2.5%\*\*에 해당하는 수입조정상쇄금을 신청 후 수령 가능

\* '25년 4월 3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 '26년 5월 1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

-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만 본 조치에 포함될 자격이 있으며, 수입조정상쇄금은 제조업체에 의해 승인된 수입자만 사용 가능
-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무장관은 수입조정상쇄금 신청 서류\* 절차 설정 필요
- \* 미국 내 생산예정인 차량 정보(공장 위치 포함), 예상되는 관세 부담액(직/간접 부담), 신청된 총 수입조정상쇄금액, 수입조정상쇄금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수입자 정보, 제조업체 고위 임원의 인증서
- 제조업체 자격을 확인한 후, 상무장관은 신청을 승인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해당 정보 통지와 수입조정상쇄금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경현
-------	------------------

■ 자료원	백악관(4.29)
-------	-----------



## (규제) 중국, 미국산 제품 125% 관세 면제 ‘화이트리스트’ 비공식 운영

- (개요) 중국 정부,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125% 관세 면제 목록 비공식 운영
  - 이는 중국의 자국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공식적인 발표 없이 관련 기업에 관세 면제를 조용히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
  - 이미 관세 면제가 적용된 품목에는 일부 의약품,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이 포함, 최근에는 미국산 에탄에 대한 관세도 면제 확인
- \* 일부 기업은 중국 당국에 자사 제품의 면제 여부를 직접 문의하기도 함.
- (상세)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대미 무역 정책 유지, 실제로는 유연하게 대응 평가
  -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대미 무역 정책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술 및 원자재 수급을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
  - 의약품, 반도체 집적회로, 항공 엔진, 석유화학 업종 등 중국 내 미국산 핵심 소재와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관세 면제 요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현지는 최근 중국 내 제조업 경기지수(PMI) 하락 등 경기 둔화 신호와 맞물려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한편 양국 협상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면제 품목과 대상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로이터( <a href="#">4.30</a> ), Economic Times( <a href="#">4.29</a> )

## ☞ 의회법안 동향

※ 의회 특이 동향 없음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b>GM Faces Up to a \$5 Billion Tariff Bill in 2025, Slashes Profit Outlook</b> (“2025년 최대 50억 달러 관세 지출” GM, 수익 전망 하향 조정)
	GM은 올해 관세 관련 비용으로 약 40~50억 달러 지출을 전망, 연간 이익을 기존보다 약 25% 하향된 82억~101억 달러로 전망. GM은 연간 판매하는 300만대 중 절반 정도만 미국서 생산
The Washington Post	<b>Trump names Waltz as nominee for U.N. ambassador</b> (트럼프, 마이크 월츠를 UN 대사 후보자로 지명)
	월츠의 지명과 함께 임시 국가안보보좌관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 최근 월츠 후보자는 정보 유출 스캔들과 대외정책 차이 등으로 인해 백악관에서 입지를 잃고 있었음
The New York Times	<b>A Tidal Wave of Change Is Headed for the U.S. Economy</b> (미국 경제로 향하고 있는 변화의 해일)
	미국 소비자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무역의 근본적 변화 임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빈 매대, 높아진 가격 등 체감 예정
CNN	<b>Vice President Vance casts tie-breaking Senate vote to kill bipartisan effort to rebuke Trump’s trade policy</b> (밴스 부통령, 상원의 트럼프 무역정책 폐기 시도에 캐스팅 보트 행사, 파기)
	원래 투표 예정이었던 공화당 미치 매코널 의원과 민주당 쉘튼 화이트하우스 의원의 불참으로 찬반이 49-49로 동률을 이룬 가운데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행사
USA Today	<b>Ukraine and U.S. sign long-awaited minerals and reconstruction deal</b> (우크라이나와 미국, 고대하던 광물-재건비용 협상 서명)
	협정을 통해 미국-우크라이나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기금을 만들 예정. 협정 타결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의 댓가로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

\* 미국 동부 시간 5월 1일 15시 기준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11	<a href="#">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5.04월
US25-10	<a href="#">美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a>	2025.04월
US25-09	<a href="#">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a>	2025.04월
US25-08	<a href="#">‘미국 우선 투자 정책’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a>	2025.04월
US25-07	<a href="#">미일 정상회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a>	2025.02월
US25-06	<a href="#">美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5.02월
US25-05	<a href="#">美 하원에 발의된 ‘미국 상호무역법안’ 상세 내용 및 시사점</a>	2025.02월
US25-04	<a href="#">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a>	2025.02월
US25-03	<a href="#">‘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5.02월
US25-02	<a href="#">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a>	2025.02월
US25-01	<a href="#">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a>	2025.01월
US24-47	<a href="#">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a>	2024.12월
US24-46	<a href="#">미 2050 원자력 3배 확대 로드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4.12월
US24-45	<a href="#">美 상무부 반도체 장비·고대역폭메모리 수출통제 조치 주요 내용</a>	2024.12월
US24-44	<a href="#">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전망</a>	2024.12월
US24-43	<a href="#">현지 언론이 평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향후 전망</a>	2024.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1 (2025.2.8.)		
코인시-20 (2024.12.23.)		

문의	이메일	전화
	seogil.chang@kotra.or.kr	+1) 202-857-7919
	jwshim@kotra.or.kr	